

# '가뭄 장기화' 완도군 생활용수 확보에 비상

### 평년 강수량 59.4%수준...노화·보길 12.5% 심각

완도군이 가뭄의 장기화로 생활용수가 부족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서 주민들을 위해 생활용수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완도군 상하수도사업소에 따르면 12월 현재 완도군 평균 강수량은 808mm로 평년 강수량의 59.4%수준이다.

특히 노화·보길지역은 710mm의 강우량을 기록해 주민 8천여 명의 식수원인 보길 부항수원지 저수율이 12.5%수준으로 매우 심각한 단계다.

완도군은 8월 가뭄대책 예비비 4억 7천만 원과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 8억 원을 확보해 보길 부항전보조 취수원 4개소를 신설하고 보수해 매일 25,000㎡를 취수하고 있다.

또한 보길·노화 권역 관정 7개소를 개발 및 보수해 매일 360㎡를 15톤 물차 5대를 이용 보길 수원지에 공급하고 있다.

가뭄 극복을 위한 지원도 이어지

고 있다. 해군 제3함대사령부는 군수지원장을 이용해 1,400㎡를 육지에서 보길 수원지로 운반했으며, 한국수자원공사는 매주 0.4 1 30,000 병과 1.8 1 2,700 병을 주민들에게 공급하고 있다.

가뭄 장기화로 보조취수원인 하천수와 관정수가 많이 고갈된 상태라 보길도의 농업용 저수지 2개소의 수질을 검사해 보조 취수원으로 활용하고 있어 부항 수원지 저수율이 급격하게 떨어지지는 않고 있지만 내년 봄까지 가뭄이 지속될 경우 주민들이 일상생활을 하기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노화·보길 지역은 9월 13일 저수율이 22%였을 때부터 제한급수 1단계인 2일 급수 6일 단수를 실시했고, 10월 12일부터는 제한급수 2단계인 2일 급수 8일 단수를 실시하고 있다.

제한급수 2단계를 실시하면서 매

일 1,100㎡의 하천수와 관정수를 공급했음에도 불구하고 월 10,000㎡의 저수율이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내년 3월에는 저수율이 5%이하로 하락해 더 이상 공급이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어 내년 1월 2일부터는 제한급수 3단계인 2일 급수 10일 단수를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완도군은 내년 1월부터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관정 개발 등 보조취수원을 최대한 확보하고 해군 제3함대의 협조를 받아 군수지원장을 이용할 계획이다.

완도군 상하수도사업소장은 "식수문제를 겪지 않기 위해 보길 정자리 주민들의 도움을 받아 제2수원지 개발을 계획중에 있다"며 "가뭄 극복에 최선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며, 가뭄이 해소될 때까지 군민 모두가 함께 물 절약 실천에 적극 동참해, 극심한 가뭄을 슬기롭게 극복하자"고 당부했다.

원도=김광수 기자

## 지체장애인협회 장흥군지회, 이웃돕기 성금 기탁

### 이재한 지회장 "어려운 분들께 희망의 온기 됐으면"



장흥읍지역사회보장협의체(읍장 백형갑, 공동위원장 강경일)는 지난 27일 지체장애인협회장흥군지회(회장 이재한)가 사랑 나눔으로

1백만원의 성금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이날 기탁된 성금은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복지사각지대의 어려운 이웃에 지원될 예정이다.

이재한 지회장은 "회원들의 작은 정성이지만 우리지역 어려운 분들께 희망의 온기가 돼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보내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장애인 뿐만 아니라 소외된 이웃과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드는 데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백형갑 장흥읍장은 "어려운 여건에서도 관내 지체장애인의 권익을 위해 항상 힘쓰는 지체장애인협회 장흥군지회의 뜻깊은 정성에 감사드리며, 항상 당당한 모습으로 장애인의 어려움을 대변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흥=김종민 기자

## 진도군, 계약심사 효과 '톡톡'... 예산 14억 절감

### 주민 일자리 창출·사회기반 시설 확충에 활용

진도군은 올해 군에서 발주한 사업에 대한 계약 심사를 실시해 사업 예산 14억원을 절감했다고 27일 밝혔다.

계약 심사는 실과소와 직속기관 등이 요청한 공사 8건과 용역 21건, 물품 구매·제조 16건 등 총 105건 211억원에 대해 실시됐다. 심사 결과 공사 9억원과 용역 4

억원, 물품 구매·제조 1억원 등 모두 14억원을 절감한 것으로 집계됐다.

절감된 예산은 주민 일자리 창출과 사회기반 시설 확충 등의 사업에 산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계약심사는 사업예산 낭비 사전 차단 등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을 위해 2011년부터 도입됐으며, 2016

년까지 62억원이 예산을 절감했다.

계약심사 대상은 군에서 발주하는 1억원 이상 공사, 5000만원 이상 용역, 2000만원 이상 물품 제조·구매 사업 등으로 계약 전에 원가계산과 공법 적용의 적정성 등을 심사한다.

진도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계약 심사 역량을 강화해 사업 품질향상은 물론 군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진도=조성용 기자

## 자치분권 여수네트워크, 지방분권 개헌 시민 뜻 모아

### 내년 1월까지 천만인 서명운동...1100여개 단체 이순신광장 등서 릴레이 캠페인



지난 26일 여수 부영3단지 사거리에서 자치분권 여수네트워크가 주관하는 지방분권 개헌 천만인 서명운동이 진행되고 있다.

여수지역 110여 개 단체가 모여 지난 12일 출범한 범시민조직 '자치분권 여수네트워크'가 지방분권 개헌을 위한 시민들의 뜻을 모으고 있다.

27일 여수시에 따르면 자치분권 여수네트워크는 지난 20일 지방분권 개헌 천만인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서명운동은 지방분권 개헌에 대

한 지역 차원의 관심을 이끌어내기 위해 내년 1월 말까지 진행된다.

여수네트워크에 참여하는 110여 개 단체는 유동인구가 많은 이순신광장, 망미로 쌍봉로 등에서 릴레이 서명운동 캠페인도 전개한다.

여수시도 서명운동 동참 안내문, 지방분권 개헌 홍보물 등을 제작해 배부하는 등 행정적 지원을 할 방침이다.

여수네트워크는 서명운동과 동시에 시민 자치역량 강화, 여수형 자치모델 개발 등에도 집중할 계획이다.

여수네트워크에 참여하는 한 시민은 "자치분권은 더는 미룰 수 없는 시대적 소명"이라며 "자치분권 상징도시인 여수시 시민들의 열의를 서명부에 담아 지방분권이 헌법에 명시되도록 강력하게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수=송기홍 기자

## 무안군 일로읍, 사랑의 쌀 기부 이어져

### 신옥미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신옥미 위원 500kg 기탁

무안군 일로읍에 연발이 맞아 사랑의 쌀 기탁이 이어져 훈훈함을 주고 있다.

지난 26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신옥미 위원은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해 달라며 일로읍사무소에 쌀

500kg을 기탁해 왔다.

이날 기탁된 쌀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과 함께 관내 저소득층, 독거노인, 장애인 등 소외계층을 직접 방문해 전달될 예정이다. 신옥미 위원은 "작은 정성이지만

어려운 이웃에게 도움을 줄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지역 사회보장협의체 위원으로서 지역사회에 나눔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솔선수범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22일에는 박정만 한국농업경영인 일로읍회장이 사랑의 쌀 1,000kg을 기탁했다. 박 회장은 이날 일로읍과 함께 무안군에도 쌀 1,000kg을 기탁하는 등 매년 이웃사랑을 실천해 오고 있다.

정영진 일로읍장은 "더불어 잘사는 지역사회를 위해 관심을 가져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며 "기탁해 주신 물품은 지원이 필요한 가구를 선별해 잘 전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무안=이기성 기자

지역공감·미래창조·정문직필

**湖南新聞**

전화 062)224-5800  
팩스 062)222-5548

# 친환경 천연 장성잔디

전남 장성군은 전국 최대의 잔디생산지이자, 30여년의 잔디 재배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어 소비자가 원하는 다양한 품질, 용도의 잔디를 제공하고 있는 한국 잔디 생산의 메카입니다.

**장성잔디향토사업단**  
061. 393. 8981

**전국 잔디 생산량 62.2%**  
장성군은 전국 잔디의 62.2%를 생산하는 국내 최대 잔디 생산지 생산액은 304억 규모로 생산액 기준으로는 전국의 66.5% 차지

**국내 최고의 품질**  
토질이 우수한 황토 흙에서 키워 품질이 우수하며 잔디의 떼깎 강도가 매우 높음.

**현대화된 장비로 효율적 관리**  
잔디의 회전율이 높고 예지 후 잔디 예초물에 대한 수거작업 실시로 대취 관리 병행

엘로우 시티 장성군